

## 제 38차 학술대회 참가기

나두섭 편집위원 (73년)

학술대회는 북미주 동창회의 최대 연례행사다. 이번이 38 차 학술대회이니 참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미주 선후배 동창님들과 동창회에 관련된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본국에 있는 모교와 모교동창회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고 학장님, 동창회장님 기타 관련된 분들은 매년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 주었다.

3/30/2023 부터 학술대회는 골프를 좋아하는 21분이 참여한 골프대회로 부터 시작되었다. 물이 귀한 남가주에 금년은 의외로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날은 모처럼 비가 내리지 않아서 별일 없이 게임을 치를 수 있었다. 상쾌한 아침에 그림같은 초원에서 에머럴드색 연못과 그위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뒤로하고 창공을 가르며 날아가는 작은 공을 보면 "비가 와도 치겠다." "이것때문에 학술대회에 온다." 고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듯 하다.

3/31/2023 둘째날에는 CME, Non-CME 가 시작 되었다. LA 근교에 있는 Cerritos 의 Sheraton Hotel 에서 있었는데 지은지 얼마 안 되었는지 모든 시설이 새것처럼 보였다. 이곳은 Cerritos Performing Arts Center 가 있는 곳으로 예술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곳이다. Registration 을 시작으로 오랜만에 정다운 선후배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것은 학술대회에 참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특권이라 하겠다. 동창회에서 언젠가부터 제공하는 아침 점심 식사는 배려중의 배려라 생각되고 식당을 찾아 여기저기 배회해야하는 수고를 없애 주었다.

은퇴 전에는 Non-CME 가 낯설게 느껴 졌었는데 이제는 은퇴한 동창들이 대다수가 되다보니 점차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흥미로운 순서로 자리잡은지 오래 되었다. 의학에 관련되는 것들도 있었고 무관한 것들도 있었는데 모두다 우리 생활에 밀접히 연관되는 문제들을 다루었다. 마리화나와 마약의 중독성 위험성과 그에 대한 치료법, 종교에 관한 문제, 사후세계에 관한 연구, 전립성암에 대한 진단과 치료 등이 논의 되었다. 듣다보면 주제에 빠져들게 되는데 이것은 연사로 나온 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연구하고 강의에 임하였는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학술대회에서 CME 는 예나 지금이나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마주 대하기만 해도 감동을 받는듯한 젊고 총명해 보이는 강사들이 많았다. 본국의 학생들도 Zoom 으로 참석하는 것을 보니 그들의 관심과 열성을 느낄수 있었고 아울러 대화 기술의 발전에 격세지감을 실감하게도 하였다.

저녁에는 흥겨운 연회가 있었다. 공부할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놀 때도 있고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보고싶은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많지 않을 것이다. "일년 만에 만나네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어느것 하나 정답지 않은 것은 없다. Banquet 이라고 불리우는 연회는 김성환 선배님의 사회로 전경배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다. 대회기 입장과 교가 제창후에 회장과 저멀리 한국에서온 의대학장님의 축사가 있었고 학장이 주는 시상인 함춘미주공로상에 이덕승, 학장상에 김태곤 두 분에게 수여 되었다. 함춘 미주 공로

상 수상의 채규철, 한혜원, 한수웅 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다. 연회에서 가장 즐거운 것중의 하나인 식사는 입에서 녹는 듯한 음식맛에 모두들 순시간에 끝내고 이어서 춤과 노래의 향연이 있었다. 감미로운 노래도 듣고 어울려 춤도 추고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며 그렇게 저녁 시간은 흘러갔다.

4/1/2023 셋째날이 되었다. 이날은 어제와 별 차이 없이 진행 되었다. Non-CME 로 한국전쟁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에 관한 이야기, 영어 단어의 뿌리와 어휘 변천에 대한 흥미있는 내용들 그리고 여가를 재미있게 보낼수 있는 취미생활에 대한 것들도 들었다. 오후에는 피카소에 관한 그림들과 연인들 이야기, 하바드대학과 서울대학의 발전기금의 비교도 있었다. 한국음식과 맞는 와인은 어떤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와인의 시음도 있었는데 참석하신분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은 와인이 우리생활에 얼마나 깊이 관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듯 하였다.

이것으로 흥미로웠던 강의도 끝을 맺고 칵테일과 Grand Banquet 을 남겨두고 모든 순서는 끝났다. 이날의 연회는 전날의 것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헤어질 시간이 온다고 생각되기 때문 일까? 부부들, 동기생들, 어떤 이유로든 관계가 생긴분들, 아니면 처음으로 여기로 만난 분들이 못다한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같은 학교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가까운 공동체 의식을 가져 온다는 것이 신기하다. 처음보는 동문들도 가깝게 생각되고 말을 건넬수 있으니 말이다.

칵테일 시간은 어느듯 지나고 김성환 Convention Chairman 의 개회 선언과 한규섭 동창회장의축사, 참석한 회원들의 소개 하는 것으로 연회는 어느듯 시작 되었다. 동창회의 지난임기 임원들 전경배 회장, 안우성 회장, 김영애 총무, 김자성 재무, 박종철 Scientific Chair 에게 감사패 증정이 있었고 박일우 Golf Chairman 의 골프 시상식도 있었다. 단체 사진을 찍은 후에 만찬과 여흥 순서가 있었다. 시간은 꿈같이 쏜살같이 흘러갔고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다시 만날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제38차 학술대회는 막을 내렸다.

이모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였을까? 여기에 다 나열을 할수는 없겠지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참가기를 마치고자 한다.